

“획하나 점하나를 원본대로”

산문박의 筆

금속활자도 오국진 씨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칼과 글이 벗이 된다. 그것을 권 팔도 하다가 된다. 결국에는 목판과 칼과 글,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무념무상(無念無相)의 시간속에서 진행된다. 물이 일체(物我一體)의 경지속의 만물이 저절로 제 궤도(軌道)를 도는 것처럼.

중요 무형문화재 101호

서각가이자 금속활자장인 오국진씨(52·국가중요무형문화재 101호)의 하루 일과는 '우리 고(古)인쇄문화의 복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가 15여년간 작업해 온 동림서관(東林書館)에 들어서면 그윽한 묵향(墨香)과 함께 정성스레 작업한 서각(書刻)작품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 2월 문체부로부터 우리나라 인쇄문화전통의 자랑인 금속활자 인쇄술의 보유자로 인정된 오씨는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

節)) 첫장의 복원을 비롯, 고려에서 조선 초기 사이의 금속활자 제작방법을 실증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는 유일한 장인(匠人)이다. 충청도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 조부에게 붓잡는 법을 배우고 뒤에 우송(又松) 이상복 선생에게 서예를 배운 것이 계기가 돼 그는 서예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글씨만 쓰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금석학의 영역에 발을 내디딘다. 금석학의 선미(禪味)를 갈수록 체득한 그는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친척인 오국진씨에게 본격적으로 서각을 배우게 됐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태어나 살아 온 고장에서 이처럼 뜻깊은 사직자가 발굴됐으나 영인본(影印本)조차 국내에 없는 것을 알고 이의 복원작업을 착수한다. 그는 우선 청주대박물관을 찾아 <직지심체요절>의 복사본을 구해 배나무에 판각(板刻)하기 시작했다.

쉽지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시작해보니 획 하나, 점 하나를 원본대로 파내는 작업은 어렵기만 했다. 그야말로 일초라도 방심할 수 없는 사경(寫經) 정진의 과정처럼 정성과 부동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수십년 동안 수천사람의 작업이었던 그 방대한 팔만대장경 판각이 마치 한 사람의 글씨인양 고른 서체와 크기로 변함없는



선조들의 인쇄술 재현엔 활나의 방심도 금물 '직지심경' '다라니경' 등 복원하며 부동심 배워

바 있다. 임진왜란 때 소실 매몰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던 흥덕사지는 85년 청주시 운천동 일대에 택지조성 사업을 하던중 '흥덕사'란 이름의 청동금구(金具)가 발견됨으로써 절터로 확인됐던 것.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태어나 살아 온 고장에서 이처럼 뜻깊은 사직자가 발굴됐으나 영인본(影印本)조차 국내에 없는 것을 알고 이의 복원작업을 착수한다. 그는 우선 청주대박물관을 찾아 <직지심체요절>의 복사본을 구해 배나무에 판각(板刻)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뼈를 깎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2개월여만에 첫장과 끝장의 복원을 끝내고 이에 자신감을 얻어 밀랍과 청동을 이용, 금속활자로 된 완벽한 원판을 복원해 낼 수 있었다. 크지 않은 조각칼과 한방의 나무판에 새겨넣은 부동심(不動心)의 흔적들이 선조들의 혼과 맞닿아 1천2백년 세월을 우리 앞에 다가서게 한 것이다.

이같은 성취에 힘을 얻어 그는 90년 세계최초의 목판 인쇄본인 <다라니경>의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770) 보다 20년 이상 앞섰음이 증명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오랜 세월 부식되고 심하게 훼손돼 있어서 일반에게는 공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파손이 더 진행되기 전에 원판을 복원해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

에 작업에 들어갔다. 발견 당시 이미 제목과 본문 등 1천5백여자가 거의 손상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까지 철저한 고증에 의해 집자(集字)해 낼 수 있었다. 90년 10월부터 꼬박 1년3개월 동안 새긴 글자는 모두 12만여 5천3백36글자.

훼손된 부분까지 되살려

<다라니경>의 글자는 고졸(古拙)함이 특징이다. 기교는 없지만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붓 끝에서 살아 넘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다라니경>의 판각은 그래서 도의(刀意)보다는 필의(筆意)에 역점을 두고 각자(刻字)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돌배나무판에 원문의 복사본을 뒤집어 붙인 뒤 기를 문어고 한지를 나무판에 대면 글자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칼과 글, 망치로 섬세하게 새겨나가는 것이 그의 작업과정이다.

“순물만한 글자들을 뒤집어진 상태에서 새긴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옛날 그대로의 획과 필선들을, 훼손된 부분까지 똑같이 만

들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일 작업대에 앉아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글씨를 새겨 나가는 작업. 덕분에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고 이때문에 나빠진 시력과 구부정한 어깨는 혼장처럼 남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라니경>의 복원을 끝내자마자 다시 <월인천강지곡>의 복원과 조선초의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의 복원에 힘을 써 왔다.

글씨는 직접 써야 한다. 오랜 세월 서예가로서 고집스럽게 매달려 온 붓글씨, 여기에다 직접 새겨보는 서각(書刻)체험, 흔들림 없는 원력(源力)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돈과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 그의 생활, 그대도 그의 작업은 쉬는 날이 없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은 한 가집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김재경 기자

‘무당질’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죽어야’ 공부 가 되는지

문 무당집에 간자 표지가 붉은 것을 보고 늘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찰 중에도 무당질을 하는 이른바 무당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당집에 신도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짐작해보면 스님들의 말씀은 너무 형이상학적인 반면 무당집에선 운명감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답 저는 가정을 가진 주부입니다.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이 공부를 하려거든 죽어야 한다! 첫째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죽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 하는데 죽으라는 말씀이 애고(egg)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짐작하면 서도 그게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형주·서울 강동구 명일동)

(최원익·경남 하동 형천면)

문 사람이 귀신 짓을 하면 귀신이 있는 것이고 귀신 짓을 하지 않으면 귀신은 없는 것입니다. 처사께서는 운명감정 따위가 실생활에 필요한 요소라 하셨는데 그럴 필요치 않다고 하면 무당집에 사람이 모이겠지요. 그러나 운명따위가 다 뭐냐 하신다면 무당집은 사라질 것입니다. 흔히들 운명을 말한다면 산세가 좋겠는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요. 오직

답 죽는게 그렇게 두렵던가요? 이게 말입니다. 난 죽고싶다, 죽고싶다 하는 분이 더 죽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 죽으려는데 아니지요. 모든 것은 고정되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공하다’고 했고 그래서 ‘나’라는 관념을 몽땅 놓는다면, 놓는다는 그 의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놓는다면 사랑할 건 사랑하고 발전시킬 건 시키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대로 공부 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해서 완전히 나와 나가 결합할 때까지 놓고가라, 그것이 첫째 내가 죽고 둘째

지 상 상 답

길을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상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지금 여기 활나의 오늘이 있을 뿐이고 과거 생애 내가 살면서 쌓은 업식도 다 지금 이 순간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사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짊어진 것을 몽땅 내려 놓으신다면 아무 것도 없게 되지요? 짊어지고 있으면 운명 운운 하겠지만 놓고 가신다면 운명은 없습니다.

더불어 죽고 일체의 돌아나기 너무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않고 나를 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번 죽는 도리는 나를 버려 나를 얻는 소식이고 두번째 죽는 도리는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며 세번째 죽는 도리는 일체와 더불어 나누는 소식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어찌 녹음해 둔 테잎에 오늘 새 것을 녹음하면 어찌 것은 이미 없고 오늘 것만 기록이 되겠지요. 그냥 지우기만 하면 다시 공테잎이 될테구요. 공테잎이 되었다면 어제의 녹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 것을 녹음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지우지 않고 옛 노래만 틀고 있다면 그 테잎은 언제나 흘러간 노래만 나오겠지요. 그렇게되면 운명은 있다 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운명감정 따위에 속갯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성제, 12년 기법을 가르칠 때 이미 운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소식을 아신다면 일체가 나와 동등하여 돌이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도량이요 만물만생의 아픔이 내 아픔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할마다 일체를 놓고 말기라, 주인 공 지어 물라 놓고가라 하는 것은 바로 죽고 또 죽어라, 이쯤하면 됐는지 하는 것도 없이 놓고 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놓고 살아라, 일체를 주인공 료으로 돌려 말기고 살라 하는 것은 이미 녹음된 것을 지우고 공테잎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공테잎이라야 진여자성의 소리가 나올 게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참으로 복잡하고 많고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일이 사랑분별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사신다면 어느 천년에 나를 밝히고 불법의 맛을 알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신 것은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벗어 죽고 또 죽는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가 없습니다. 그는 사라집니다.

스님들께서 형이상학적인 말씀만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처사님의 분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물리가 터지지 못한 분이라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생각부터 놓고 가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법으로써 나도 건지고 일체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통박으로 벗어나 통을 굴릴 수 있다면 얽은 자리에서 싸움도 말릴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주인공-참 자기를 믿고 관념의 나로서는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高撰者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제!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배어있는 쉬운 법화경.

佛 書 專 門 出 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O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매월 (양력) 11일 오전 11시~12시까지 법어사 내인양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를 열립니다. 연락처 (051) 508-5165

현대불교신문서

1. 문수사리소설 미하반야변리밀경 李東海·釋能高撰주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예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李東海·釋能高撰주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高撰주
4. 육묘법문 李東海·釋能高撰주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야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문서는 일한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를 사용 해 보 세 요 !

태아가 임부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유택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외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때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뒷걸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2가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